

석유 · 가스분야 석학 경주에 모인다

제 1회 세계장치산업안전학회 (WCOGI 2007) 개최

출처 | 전기신문 남형권기자(namhg@electimes.com)

석유 · 가스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모였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미국 텍사스 A&M대학과 연계해 10일부터 13일까지 '규정을 넘어선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안전관리' 라는 주제로 제 1회 세계장치산업안전학회(WCOGI 2007)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분야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공분야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회기간에는 산업설비 위험관리, LNG(액화천연가스) · LPG(액화석유가스) 안전과 사고감지 · 진단, 설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어기술과 대체에너지 공장 안전 등 15가지 주제로 논문 200여 편이 발표됐다.

특히 장치산업 안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 화학안전 · 위험 조사위원회 캐롤린 메기트 회장과 네덜란드 델프트대학 한스 J 파스만 교수 등도 발제에 참여해 석유화학 · 가스 산업 분야의 첨단기법을 소개했다.

또 석유화학 · 가스 장치산업 분야 12개 기업체의 다양한 제품과 장비, 소프트웨어 등이 호텔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유명한 A&M대학과 연계해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학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 이현만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A&M대학 교수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4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주요 원자재인 방향성 전기강판 내수 가격을 전격 인상 포스코, 변압기 강판 가격 7% 인상

출처 | 전기신문 송세준기자 (21ssj@electimes.com)

포스코가 변압기의 주요 원자재인 방향성 전기강판 내수 가격을 전격 인상한다. 포스코는 4월 19일 주문분부터 방향성 전기강판 가격 내수가격을 톤당 308만원에서 330만원으로 22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후판 가격은 톤당 2만원 인상해 선급용은 2만원 인상된 60만5천원, 비선급용은 64만원이 됐다. 다른 제품의 가격은 기존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포스코의 5월 매출분부터 방향성 전기강판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변압기 제조업체의 재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철광석 가격 인상분이 원가에 반영됨에 따라 19일 주문분부터 일부 제품의 국내 판매가를 소폭 인상키로 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 여건을 고려해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일부 제품에 한정해 가격을 올렸으며 인상폭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원가 비중이 40%에 달하는 변압기 제조업체로서는 이번 가격 인상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변압기 업체는 특히 한전 납품단가나 내수 변압기 가격이 지난해 수준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판 가격 인상이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값도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강판마저 가격이 인상돼 원가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번 내수가격 인상으로 방향성전기강판 부문에서 54억원의 추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객 파급정전 예방 특별대책’ 마련

한전, 2011년까지 파급정전 50% 감소 추진

출처 | 전기신문 윤정일기자 (yunji@electimes.com)

한전이 오는 2011년까지 고압아파트 등 고객설비 고장으로 인한 파급정전을 50% 이상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 3년 평균 212건에 달했던 일시파급정전과 2020건이었던 순간파급정전이 2011년 이후에는 각각 100건, 1000건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은 11일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객 파급정전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일선 사업소에 통보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한전은 고객 파급정전 예방을 위해 예방진단 확대, 수전설비 보강지원, 파급정전 원천차단, 업무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중 예방진단 확대를 위해 현재 고압아파트 수전설비만 시행했던 열화상진단을 모든 고압고객으로 확대하고, 송전 뒤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도 노후 지중인입케이블 열화진단을 시행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고장다발 설비에 대한 기자재 및 절연화 지원, 수전변압기 교체지원사업 등 수전설비 보강지원을 통해 파급고장을 예방해나가기로 했다.

한전은 또 파급정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내고장 파급방지용 고속차단기와 고장구간 자동개폐기(ASS)를 설치, 운용하고, 아파트 구내정전자동통보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한전은 이와 관련 올해 파급방지용 고속차단기 30대와 ASS 300대를 시범 설치하는 한편 파급정전 예방을 위한 업무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번엔 마련한 단기대책의 효과를 분석해 2009년 이후에는 추가대책을 검토, 시행할 계획”이라며 “2011년 이후에는 파급정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파급정전은 고압아파트 등 수용가가 직접 관리하는 설비고장이 한전 계통에 영향을 끼쳐 일시, 순간정전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체 일시정전의 14.3%, 순간정전의 23.4%가 파급정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제59회 국제에너지기구 풍력위원회 제주에서 열려 세계 풍력전문가, 바람 많은 제주에서 ‘바람에너지’ 논의

문의 |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02-2110-5425

■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4월 17일에서 20일까지 제주 하얏트호텔에서 국제 풍력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59차 국제에너지기구풍력분과(IEA/WIND) 위원회 회의와 국제풍력 워크숍을 개최함

○ 풍력분과는 국제에너지기구 연구개발분야중 재생에너지 실무그룹의 하나로, 참여 국가들의 풍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촉진 및 정보 공유를 위해 1977년 설립됨

○ 한국은 '05.8월부터 동 분과에 가입하여 풍력분야의 선진국인미국·독일·덴마크·영국 등 21개국과 함께 활동 중

■ 금번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의장인 포르투갈의 Ms. Ana Estanqueiro(애나 에스탄퀘이로)를 비롯,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 국가별 풍력 연구개발 및 보급(RD&D) 현황 및 최근의 정책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 주요국가 풍력 연구개발 및 보급 (RD&Deployment) 현황 참고

○ 현재 진행중인 협력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승인여부 및 분과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임

산자부 장관, 한전등 전력공기업 신임사장단간담회에서 밝혀

산자부, 전원개발 갈등관리 대책 연내마련추진

문의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02-2110-5475

- 발전소, 송변전설비 등 전원시설 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갈등관리 강화 방안 마련(07.12)
 - 주민공청회 개최, 집단민원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에 인허가권 이양 등

- 전력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제시
 - 자원부국 중심 자원외교 강화 및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전력지원과 자원개발 연계강화, 해외시범사업 등 전력산업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사업 확대

- 한전, 발전회사 등 전력공기업 신임사장단 축하와 함께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수급체제 구축 및 국제경쟁력 확보 당부

- 김영주(金榮柱) 산업자원부 장관은 4월 13일 웨스틴조선 호텔에서한전, 발전회사, LS산전, 두산중공업 등 전력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기역사 12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새로 임명된 한전, 발전회사 등 신임 전력공기업 사장단의 취임을 축하함.

- 金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1887년 경복궁에 전기가 들어온 이후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전력산업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전력설비도 세계 12위의 전력강국으로 부상하였다고 평가함.



가스 · 전기화재사고... 이제그만!

전국 재래시장 1,660개소 가스 · 전기화재사고 예방 일제점검

문의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4

■ 지난 '05.12.29일 발생한 대구서문재래시장 화재사고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자주 왕래하거나, 밀집된 장소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은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평소 철저한 사고예방 안전관리를 필요로 한다.

■ 이에,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에서는 가스폭발 및 전기화재등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4월18일부터 5월10일까지 약 20여일에 걸쳐 전국의 재래시장 1,660개소(점포수 약 239,200개소)에 대해 대대적으로 가스 · 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및 재래시장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안전점검과 설문조사내용은 재래시장내 가스 · 전기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전기합선과 각종안전장치 작동상태 및 사고발생 직 · 간접유해요인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시설관리자의 자체점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해 설문서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 재래시장별 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 재래시장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시 · 도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재래시장위험등급별 특별관리 등의 『재래시장 위험등급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및 태양발전시스템 성능평가 전망

1MW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순천에서 준공

문의 |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02-2110-5425

-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신재생에너지 R&D사업으로 추진한 1MW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증연구단지가 순수 국내기술을 이용하여 2007년 4월 27일(금) 순천에서 준공된다고 발표함
- 동 연구단지는 1MW급 태양광발전소와 계통연계 연구를 위한 설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마린(주)를 주관기관으로 '04.11~'07.10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9억원으로 진행되는 R&D과제임(정부: 7,485백만원, 민간: 2,493백만원)
- 국산기술을 이용한 최초의 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 및 시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 단지는 전남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소재 폐염전을 활용하여 건설됨(면적: 27,423㎡)
- 금번에 준공하는 실증단지 외에, 현재는 1MW 태양광 단지는 인천 영흥, 동해, 강진, 무안 등 4대의 단지가 운영중에 있음 (국내 중대형 태양광발전소 참고)
- 산자부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으로 대규모 발전사업기술에 대한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태양광발전기술의 수출 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함

